



우상혁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예선 경기를 펼치고 있다. 우상혁은 2m28을 넘어 예선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 세계선수권 결선행

한국 선수로는 1999년 이진택 이후 23년 만에
남 높이뛰기 예선서 2m28 넘어 공동 1위
“3일 후 결선서도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4차례 시도를 모두 성공하며 공동 1위로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선수권 결선에 오른 것은 우상혁이 1999년 세비야 대회 이진택 이후 23년 만이다. 우상혁은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어 공동 1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냈다. 그는 2m17, 2m21, 2m25,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했다. 2m30을 넘으면 결선에 자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2m28에서 공동 12위를 포함한 결선 진출자 13명이 결정돼 예선이 그대로 끝났다. 남자 높이뛰기 예선 출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는 32명이었지만, 3명이 대회 직전 출전을 포기하고 마즈디 가잘(35·시리아)이 경기 직전 기권해 이날 28명이 경기를 치렀다. 2m17을 1차 시기에 뛰어넘은 우상혁은 두 번

째로 2m21도 1차 시기에 성공했다. 우상혁은 이어 2m25도 한 번에 뛰어넘었다. 2m28도 여유있게 1차 시기에 넘어 우상혁은 양손 검지를 흔드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예선을 마친 선수는 우상혁과 무타즈 예사 바삼(31·카타르), 장고 로벳(30·캐나다),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 등 4명 뿐이다.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바삼과 공동 1위에 오른 장마르코 템베라(30·이탈리아)는 2m25와 2m28을 모두 3차 시기에 넘으며 힙합계 결선 진출권을 따냈다. 미국 대표 선발전 우승자인 켈비 맥류언(26·미국)도 2m28을 3차 시기에 성공했다. 2m28을 성공한 11명과 2m25를 1차 시기에 성공한 에드가 리베라(31·멕시코), 마테우시 프시빌코(30·독일)가 공동 12위로 결선에 합류했다. 우상혁은 19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결선에서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대한육상연맹에 따르면 경기 후 우상혁은 “예선에서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운영했다. 결선처럼 집중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3일 후 결선에서도 오늘처럼 잘 집중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상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를 마친 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 남은 결선에서도 모두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레츠고 우(Let's go woo)”와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결선에 진출한 선수는 우상혁이 이진택에 이어 두 번째다. 이진택은 1997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에서 2m28을 뛰어넘어 공동 1위로 예선을 통과했고 결선에서 2m29를 기록해 8위에 올랐다. 1999년 스페인 세비야 대회에서는 2m29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도 2m29를 기록해 6위를 차지했다. 이진택이 1999년 세비야 대회에서 작성한 6위는 한국 트랙·필드의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 높이뛰기 선수로는 이진택 이후 23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선 진출에 성공한 우상혁은 역사에 도전한다. /뉴시스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절실”

전북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워크숍서

전북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전북체육회 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경기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종목별 경기단체장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 광방지교육, 투명한 단체운영 및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 교육과 연초 실시한 경기단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기단체의 보완사항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와 애로사항 청취,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준비사항과 각 종목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계획 및 경기력 향상 방안을 토의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경기단체의 애로 및 요구 사항은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도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과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종목별 전문지도자 배치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시설 확충·보완, 접근성이 용이한 시·군별 장애인전용체육관과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경기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등 우수선수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과 장애인체육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철저한 개인방역과 선수관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

김제시청 태권도팀, 태권도원배 금빛 발차기

금1·은2·동1 획득... 종합 2위

김제시청 태권도팀(감독 천병열)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태권도팀은 겨루기 여자일반부에 출전해 김다빈(-73kg)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송미성(+73kg), 이수국(-67kg) 선수가 은메달, 김소형(-49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해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여자일반부 종합 2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훈련에 매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낸 값진 성과이며, 지난 4월 한국살인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에서도 금 1, 동 3, 메



달 4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철저한 준비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올해 남은 모든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활약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청 탁구단, 내셔널 실업대회에서 女복식 ‘준우승’

장수군 여자탁구단이 지난 14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열린 2022 내셔널 실업탁구대회에서 여자복식 준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안았다.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사)한국유소년탁구연맹 주관으로 유소년오픈대회와 실업 내셔널

그 팀들의 이벤트 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인전, 개인복식전, 단체전 등으로 치러지고 있다. 장수군청, 강동구청 등 여러 직장운동경기부 등 16개 조가 참가한 이번 개인 복식전에서 장수군청 여자탁구팀 소속 최지인·유민지 선수는 결승에 올라 값진 준우승을 안았다. 장수군청 여자탁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오늘 대회를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해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